K-디스플레이업계, '8.6세대 OLED' 경쟁

선제투자·양산 vs 리스크관리 강화

〈삼성〉 〈LG〉

삼성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생산라인 4조 투자
양산 돌입… 유상샘플 고객사 출하

LG디스플레이
신중론 유지… 기존 인프라 대응
로봇 적용 등 시장 성장세 주목

삼성디스플레이가 8.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을 본격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신중한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IT기기와 로봇 등 차세대 응용 패널 시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대응에 나서는 공통된 흐름을 띠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8.6세대 OLED 양산을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부적으로 수율 등 양산성이 검증된 샘플을 고객사에 유상으로 출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4월 4조 1000억원을 투자해 월 1만 5000장 규모의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8.6세대 생산 라인이 있는 아산 사업장에서 성공적인 가동을 기원하는 출하식 및 안전 기원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에 반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8.6세대 OLED 투자와 관련해 시장이 아직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존 인프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양사가 8.6세대 OLED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는 데는 기술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판이 커질수록 유기물을 고르게 입히는 기술 난도가 높아지는 만큼, 초기 수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투자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6세대 OLED를 둘러싼 접근법은 엇갈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목하는 방향은 로봇 등 차세대 응용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로봇분야를 성장동력축으로 삼고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스마트폰과 IT 기기를 통해 중소형 OLED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전용 패널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CES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OLED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3.4인치 원형 OLED를 적용한 'AI OLED' 봇을 공개했다. 폴더블, 초박형 등 기존 모바일·IT용 OLED를 로봇과 웨어러블, AI 액세서리로 확장한 것이다. 8.6세대 IT용 OLED 양산에 더해 장기적으로 IT 기기와 로봇, 엣지 디바이스를 OLED포트폴리오에 두겠다는 전략이다.

LG디스플레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을 구현한 P(플라스틱)-OLED 패널을 공개했다. 유리 기반 OLED와 비교해 무게가 적고 유연성이 높아 로봇의 곡선 형태의 얼굴이나 관절 등에 적용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차량용 탠덤 OLED 기반의 휴머노이드용 OLED도 선보였다. 탠덤 OLED는 레드·그린·블루(RGB) 유기발광층을 복수로 쌓아 기존 OLED 대비 휘도 및 수명을 높인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8.6세대 OLED 투자는 자금 부담이 큰 만큼 기업별 재무 여건과 시장 전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IT기기와 로봇 등 신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는 업계의 공통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전고체 양극소재 개발로 제2의 도약"

에코프로 이동채 창업주 사업장 점검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운데)가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새해를 맞아 주요 사업장을 잇달아 찾으며 기술 중심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소재 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위기 국면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에코프로는 이동채 창업주가 지난 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을 방문해 미래 소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은 에코프로가 청주에 처음 터를 잡은 이후 흡착제 등 친환경 소재와 촉매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곳으로, 그룹 기술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이 곳에서 에코프로의 씨앗을 뿌려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소재 개발이 에코프로의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동채 창업주는 올해 시무식에서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4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기술로 성장해 온 에코프로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있다"며 "기술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채 창업주는 지난 5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에코프로에이치엔 조평사업장도 방문해 생산 시설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평사업장은 도가니와 도관트 등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거점으로, 대지면적 약 5만㎡ 규모다.

특히 이곳은 배터리 양극재 소성 공정에 필수적인 도가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도가니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조평사업장 가동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동채 창업주는 "혁신을 통해 경쟁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주요 외신 '정의선號 AI·로봇 비전' 주목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호평 이어져
美 AP "실수나 부족함 없이 뛰어나"
英 테크레이더 "동료로 활약 기대"

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공들여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통해 피지컬 AI 비전과 로봇 기술을 공개했다.

1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AP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도적인 로봇 제조업체들도 실수를 우려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힘들다"며 "아틀라스의 시연은 실수나 부족함 없이 아주 뛰어났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ES 2026에서 공개된 주요 로봇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아틀라스의 방수기능과 배터리 자동 교체 기능을 거론하며 "올해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오랜 테스트를 거친 아틀라스가 세련된 제품으로 거듭나는 해"라고 밝혔다.

해외 자동차, 테크 전문지 등에서도 현대차그룹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위크는 '현대차의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은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그룹은 로봇과 인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현대차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기술의 핵심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아닌 로봇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영국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레이더는 "아틀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IT 전문매체 버지는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와 경쟁할 모델이라고 전했다.

매체들은 실제 현대차그룹 생산 시설에 투입되는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테크라이더는 "아틀라스가 제조 현장에서 인간의 동료로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 디지털 미디어 마셔블은 "현대차그룹은 언젠가 아틀라스 로봇이 가정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로봇 전문지 로봇스타트는 "현대차그룹이 가고자 하는 로봇 생태계는 AI 로봇의 대량생산과 사회적 구현을 가능하게 해 기술 측면뿐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틀라스는 8일(현지시간) CES 현장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 출시

온·습도 조절 등 욕실 최적 상태관리

LG전자가 프리미엄 에어컨·공기청정기를 통해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욕실 공기질을 위한 온도, 습도, 위생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19일 신개념 욕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인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가 내놓는 첫 번째 욕실 에어케어 제품이다.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은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온풍-송풍-환기를 자동으로 전환해 욕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의 '공간 케어' 모드는 추울 때는 온풍으로 욕실을 미리 데우고, 습도가 높을 때는 송풍과 환기로 답답함을 없앤다. 욕실 온도와 습도가 각각 22도와 50%에 도달하면 대기 상태로 자동 전환된다.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에 활용되는 UV나노(UV nano) 기술로 차별화된 '위생 케어'도 장점이다.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은 '프리미엄' 모델과 듀얼 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배기팬이 포함된 '프리미엄 듀얼' 모델로 출시된다. 기존 사용 제품이 있더라도 타공 외 별도의 공사 없이 1시간 전후로 설치 가능하다. 일시불 구매와 구독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프리미엄 기준 각각 99만원(프리미엄 듀얼 119만원), 2만 4900원(6년 기준)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아반떼, 美 누적판매 400만대 돌파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미국 출시 24년 만에 누적 판매 400만대를 넘어섰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이 주류인 미국 시장에서 세단 모델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에 출시된 한국 차량 가운데 최초 기록이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반떼는 1991년 미국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현지에서 총 401만661대가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아반떼의 꾸준한 인기에 대해 다양한 라인업과 가격 경쟁력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가솔린 모델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고성능N 모델까지 선택지를 넓혔고, 미국 내 권장소비자가격(MSRP)도 2만2000달러 중반대로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등 동급 경쟁 차종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품성과 안전성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아반떼는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 북미 올해의 차(NACTOY)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TSP+를 획득했다.

/원관희 기자